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24.(화)

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에 빈틈없도록 응급잠자리·의료 지원 현장 점검

-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방문해 한파 대비 보호 상황 확인하고 종사자 격려 -
- 거리 순찰 강화, 응급잠자리 및 난방용품 지원 등 당부 -

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1월 24일(화) 오후 2시 **‘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**(이하 서울역희망지원센터, 서울 중구 소재)’를 방문하여 **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 상황을 점검**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.

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2002년 개소 이래 서울역 인근 거리노숙인들에게 **상담, 의료서비스 지원, 응급잠자리 제공,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** 등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일선에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.

이날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본격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**거리노숙인 보호**를 위한 **현장 대응 체계 구축** 현황을 점검했다.

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,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, 기저질환 보유자 등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을 **집중보호 대상자**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, 손난로, 담요와 같은 **난방용품 확보**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.

이어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**응급잠자리**와 거리노숙인에게 무료로 의류를 제공하는 **옷방**, **샤워시설** 등을 직접 확인하여 거리노숙인 **보호 환경**을 점검했다.

또한,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**부속 의원 서울역 노숙인 무료 진료소를** 방문하여 겨울철 **노숙인 건강관리** 상황과 **진료소 운영 현황**을 확인하고,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적절한 **진료**와 **치료**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종사자들의 **현장 애로사항**을 **청취**했다.

김문식 복지정책관은 “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어 거리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”라며, “거리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구호 물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서울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

담당 부서	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환 (044-202-3070)
		담당자	사무관	손옥연 (044-202-3074)

붙임 **서울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현장방문 개요**

□ 개요

○ **(일시)** ‘26. 11. 24.(화) 14:00~15:00 (60분)

○ **(장소)**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
(서울시 중구 통일로 15)

○ **(참석)** 복지정책관, 자활정책과, 종합지원센터장 등

○ **(주요내용)**

-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종사자 면담 및 격려
-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시설 및 응급잠자리 운영 현황 확인
- 거리노숙인 겨울철 건강관리 상황 점검

□ 세부 계획(안)

시 간(소요)	내 용
14:00~14:10(10′)	○ **도착 및 관계자 인사**
14:10~14:40(30′)	○ **시설 라운딩 및 종사자 간담회**
14:40~15:00(20′)	○ **무료진료소로 이동 및 진료소 라운딩**